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

2/19 월요일

아침의 누림**딤펴 4:6**

6 그대가 이러한 것들을 형제들 앞에 제시한다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긴밀히 따른 좋은 가르침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사역자가 될 것입니다.

딤펴 2:2

2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나에게 들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말하십시오.

마 4:4

4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렘 15:16

16 주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제가 그것을 먹었더니 주님의 말씀이 제게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었습니다. 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이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까닭입니다.

요 6:57

57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롬 15:16

16 이 은혜로 나는 이방인들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역자, 곧 하나님의 복음에 수고하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골 1:7

7 여러분은 우리와 함께 노예가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역자이며,

그리스도의 사역자는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섬기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구주와 생명과 생명 공급과 모든 긍정적인 것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공급한다. 사역자는 율법이나 다른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들과는 다르다(딤펴 1:7, 3). ...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그리스도께 속한 것은 사실이지만, 디모데전서 4 장 6 절에 담겨있는 중요한 사상은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그리스도로 다른 이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역자는 그리스도께 속했을 뿐 아니라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로 섬긴다. (디모데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8,71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바울은 “그대가 이러한 것들을 형제들 앞에 제시한다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긴밀히 따른 좋은 가르침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사역자가 될 것입니다.”(딤펴 4:6)라고 말한다. ‘이러한 것들’이란 이 서신서에서 바울이 지금까지 다른 모든 것을 의미한다. 청지기가 저녁 정찬에서 손님 앞에 여러 다양한 음식을 차례대로 내놓듯이,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는 ‘이러한 것들’을 믿는 이들 앞에 제시해야 한다. 더욱이 바울이 ‘양육을 받아’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것에 관한 사상이 그에게 있음을 가리킨다. ... 우리가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에게 공급하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양육을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로 양육을 받을 때,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공급할 음식 즉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된다.

‘양육을 받아’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는 다른 이들에게 단지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음식으로 다른 이들 안으로 공급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근거를 우리에게 제공한다. 다른 이들이 우리에게 대해 말할 때, 우리가 그들을 그리스도로 양육했다고 증언할 수 있어야 한다.

디모데는 이러한 것들을 다른 이들에게 제시하기 전에 그 자신이 먼저 먹어야 했다. 그는 그것들을 소화하고 동화하며, 그것들이 그의 내적 존재를 적시도록 허락해야 했다. 그럴 때 그는 형제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제시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디모데의 본을 따라야 하고,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 사역을 통해 주님께 양육받은 것들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한다면 교회생활은 얼마나 놀랍겠는가! 그러나 우리가 이 사역에서 빛나가서 다른 무언가를 산출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가르침들에 입지를 내줄 수 있다. 디모데는 바울이 가르친 것과 다른 어떤 것을 가르치려고 의도하지 않았다. 그보다 그는 바울에게서 받은 것을 형제들에게 제시했다.

나의 부담은 ... 각지 교회를 위하여 식료품을 마련하는 것이다. ... 만일 각지 교회의 인도하는 이들이 《라이프 스타디》 안에 담겨 있는 풍성을 성도들 앞에 제시한다면, 성도들은 풍성히 양육받을 것이다.

나는 그저 교회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을 잘 먹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주님께서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보여 주신 풍성, 곧 식료품을 성도들에게 제시하라.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 우리는 그들에게 음식을 공급할 부담을 취해야 한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가 되어 그분의 풍성으로 다른 이들을 섬겨야 한다. 우리 자신이 먼저 양육을

받고, 그런 다음 이 자양분을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공급하자. 우리는 양육을 받는 것이 생명의 성장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것은 지식에 속한 문제, 곧 가르침만 받는 것과는 다르다.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하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에 관한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한다.

디모데전서 4 장 6 절에서 바울은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긴밀히 따른 좋은 가르침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라고 분명하게 말한다. 믿음의 말씀은 하나님의 신약경륜에 관한 완전한 복음의 말씀이다. ...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경륜의 초점을 보기 원한다면,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를 연구하라. 우리는 이 책들에서 발견되는 믿음의 말씀, 즉 하나님의 경륜으로 양육을 받아야 한다. (디모데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8, 72, 74-75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디모데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8

2/20 화요일

아침의 누림

히 5:12-14

12 시간으로 본다면 여러분은 마땅히 교사가 되었어야 하는데, 아직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인 기초를 가르쳐 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13 젖을 먹는 사람마다 의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인데, 왜냐하면 그가 갓난아기이기 때문입니다.

14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충분히 성장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훈련받은 감각

기능을 사용하기 때문에,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합니다.

엡 4:14-16

14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함으로, 온갖 가르침의 바람에 밀려다니거나 파도에 요동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사람들의 속임수이며, 오류의 체계에 빠지게 하는 간교한 술수입니다.

15 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16 그분으로부터 온몸은 그 풍성한 공급을 해 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벤전 2:2-3

2 갓난아기들처럼 말씀의 순전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은 젖으로 자라서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3 여러분이 주님께서 좋으시다는 것을 맛보았다면, 틀림없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시 34:8

8 여호와께서 좋으시다는 것을 맛보고 깨달아라. 그분께로 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네.

디모데전서 4 장 6 절에 따르면, 우리는 또한 우리가 긴밀히 따른 좋은 가르침으로 양육을 받아야 한다. 좋은 가르침의 말씀은 믿는 이들을 양육하고 온전하게 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풍성을 담아 전달하는 달콤한 말씀이다. 사실상 믿음의 말씀과 좋은 가르침의 말씀은 동일한 것을 의미한다. 다른 이들을

가르치려면, 우리 자신이 먼저 이러한 말씀을 긴밀히 따라야 한다. 이 말씀을 긴밀히 따르고 이 말씀으로 양육을 받을 때, 우리는 다른 이들을 먹일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어떤 어머니가 합당하게 자기 자신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자녀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먹일 수 없을 것이다. 어머니는 자신이 양육받은 체험을 통하여 그녀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음식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예시는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로서 우리가 먼저 긴밀히 따른 믿음의 말씀과 좋은 가르침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만 다른 이들을 양육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디모데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8, 75-76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서로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교회생활을 하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를 받아들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롬 15:5-7). 언제든지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면 한입으로 같은 것을 말하게 된다. 한마음 한뜻, 그리고 한입이 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께 지위를 드려 그분께서 우리 마음과 입에서 모든 것이 되시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이시라고 말해 왔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때,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신 그분을 받아들이며 모든 영광을 그분께 드린다.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5 권,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을 체험함은 곧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는 것임, 5 장, 94 쪽)

교파에 있는 많은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 사랑하는 형제들은 그들이 지금까지 들은 것과 현재 소유한 것보다 더 높고 더 깊고 더 풍성한 무언가를 찾고 있다. 그들은 얕은 것들에 식상해하고 있다. 우리가 그들에게 고봉의

진리들을 말한다면 그들은 깨어날 것이다. 처음에는 반대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점차적으로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현재의 계시의 고봉에 속한 진리들을 배우고, 이러한 것들을 말하기를 배워야 한다. 우리는 가야하고 말해야 한다. 나는 현재의 계시의 고봉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가장 주목받는 식료품점이 되리라고 믿는다.

나는 우리 모두가 이 높은 위임을 취하기를 격려한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완결할 신성한 계시의 고봉에 속한 그분의 진리들을 위해, 하나님의 최선의 이상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라.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3 권, 삼일 하나님의 계시와 그분의 움직이심, 12 장, 190 쪽)

사람들이 음식에 대해 서로 다른 입맛을 갖고 있듯이, 주님의 회복 또한 여러 해에 걸쳐 회복을 건축해 온 이 사역에 대한 입맛을 갖고 있다. 회복은 어떤 입맛으로 세워졌다. 이러한 맛으로 양육을 받은 이들은 이것과 다른 맛을 거절할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이 주님의 회복의 맛과 다른 무언가를 말한다면, 여러분이 말한 것은 거절당하고 여러분은 가장 먼저 손실을 당하게 되리라는 의미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러한 많은 사례를 보아 왔다.

여러분이 지혜롭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입맛을 파악할 것이다. 회복 안의 모든 교회는 이 사역을 통해 세워졌으며, 성도들은 여러 해 동안 이 사역을 '먹어' 왔고 이 사역에 대한 입맛을 갖고 있다. ... 만일 성도들이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맛과 다른 무언가를 '먹을' 거라고 기대한다면, 여러분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84년, 2 권, 장로 훈련, 3 권: 이상을 실행하는 길, 12 장, 423-425 쪽)

추가로 읽을 말씀: 하나님을 누리는 길, 2 장

2/21 수요일

아침의 누림

딤후 3:15

15 혹시 내가 늦어지게 되더라도, 그대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알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기반입니다.

요 17:17

17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딤후 2:15

15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곧게 잘라 내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으로 자신을 드리도록 힘쓰십시오.

고후 4:5-6

5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는 것과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노예가 된 것을 전파하기 때문입니다.

6 왜냐하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밝히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고전 2:1-2

1 형제님들,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탁월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시다.

2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돌보기를 배우는 데 있어서 한 가지 기본적인 공과는 바로 진리에 대하여 절대적인 것이다. 성경 안의 어떤 진리도 사람의 상태와 뒤엎혀서는 안 된다. 오늘날 사람이 진리에 대하여 절대적이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진리를 자신의 상태와 뒤엎히게 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진리를 자기 자신의 상태와 뒤엎히게 할 때, 그는 자신이 체험하지 않은 진리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느낀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체험이, 어떤 진리에 관하여 말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요건이 아님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진리는 그 자체로 절대적이다. 다윗은 각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거짓을 말한다고 했다(시 12:2). 다윗은 이 말을 할 때 자기 자신을 고려하지 않았다. ... 진리는 절대적이므로, 우리는 자신을 희생하고 제쳐 두어야 한다.

우리는 개인의 상태가 하나님의 진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어떤 진리가 사람의 영향을 받는다면, 그 진리는 더 이상 진리가 아니다. 만일 진리가 여러분에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다. (워치만 니 사역 재개 메시지 기록(하), 개정판, 50 장, 67-68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나 자신의 개인적인 어떠함이 하나님의 진리의 어떠함에 영향을 줄 수 없다. ... 세상에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여러 가르침에 따라 수많은 논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진리 자체가 변하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적인 요인들이 변하기 때문이다.

진리가 절대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디모데전서는 진리의 기둥에 관해 말한다(3:15). 왜 이 책은 진리의 기둥에 관해 말하는가? 그 이유는 기둥은 움직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둥은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없다. 그것은 이리저리 옮길 수 있는 의자와 다르다. 만일 우리에게 맑은 생각이 없다면, 진리는 우리에게 어떤 효력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진리는 자신의 느낌에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 맡겨질 수 없다. 이것은 하나의 큰 시험이다. 사람은 반드시 진리의 편에 서서 자기 자신과 맞서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아닌 진리를 지킬 수 있다. 한 번도 처리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틀릴 때 진리를 조금 낮추고, 자신이 옳을 때 진리를 조금 높인다. 이것은 그들이 엘리베이터 같고, 진리가 그들과 함께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직 자신을 처리한 이들만이 진리를 지킬 수 있다.

오늘날 이토록 어둠이 짙은 이유는 사람이 진리를 희생시키고 억지로 진리를 자신에게 맞추려고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진리를 유일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고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용기가 있다면, 새로운 빛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다. ... 우리가 빛을 희생시키지 않는다면, 빛은 우리를 높일 것이다. 진리를 따를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자기 자신을 심판하는 이들만이 전진할 가능성이 있다. 진리를 따르지 않고 반대로 진리의 표준을 낮추는 사람들은 영원히 어둠 속에서 살 것이다. 빛이 그들 위에 내려올 길이 없을 것이다.

한 면에서 우리는 체험이 없는 경우 진리를 전파할 수 없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우리는 진리가 우리라는 사람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는 지점까지 이끌리고, 말씀을 희생시키지 않으며, 말씀이 우리 자신을 유죄판결 하는 것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빛을 받아들일 것이다. 이것이 계시를 받는 비결이다. 역사를 통틀어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희생시키지 않았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반드시 따라잡아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 따라잡을 수 없다면 우리는 그저 죄를 범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우리 앞에 있는 길에 대해 분명해지고, 우리에게 더욱더 많은 빛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진리를 읽고 전한 것이 모두 공허한 말과 공허한 전파가 될 것이다. (워치만 니 사역 재개 메시지 기록(하), 개정판, 50 장, 69-71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워치만 니 사역 재개 메시지 기록(하), 개정판, 50 장; 워치만 니 전집, 개정판, 52 권, 주님의 사역자의 성격, 8 장

2/22 목요일

아침의 누림

계 22:14

14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얻고 문들을 통하여 그 성안으로 들어가도록 자기의 겉옷을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겔 37:10

10 그래서 내가 그분께서 명령하신 대로 신언하자, 숨이 그들 속으로 들어가, 그들이 살아나서 제 발로 일어섰는데 지극히 큰 군대였다.

아 4:11

11 나의 신부여, 그대의 입술은 신선한 꿀을 흘리고 그대의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으며 그대의 옷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도오.

고후 3:6

6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게 하셨습니다. 사역자들은 문자에 속해 있지 않고 그 영께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그 영은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딤후 1:13-14

13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서 들은 건강한 말씀의 본보기를 붙잡으십시오.

14 그대에게 맡겨진 아름다운 것을 우리 안에 거하시느 성령을 통해 지키십시오.

시 119:11

11 저는 주님께 죄짓지 않으려고 제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였습니다.

골 3:16

16 온갖 지혜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은혜로 하나님께 찬송함으로써 거하도록 하십시오.

신언자는 하나님을 호칭하고, 하나님 안에 살며,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다. 신언자는 하나님의 대변인과 하나님의 표현으로서 섬긴다. 따라서 신언자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신언자의 사역과 그가 하는 말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누리도록 그들을 부르는 것이다. ... 신언자로서 사역하는 사람은 생명나무를 누리는 이가 되어, 다른 사람들도 생명나무를 누리도록 그들을 부르고 인도한다. ... 신약의 모든 서신서들은 이 원칙에 따라 기록되었다. 서신서의 저자들은 ...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며,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호칭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표현과 그분의 대변인이 되었다. 따라서 그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각 서신서의 메시지, 곧 그 안에 담겨 있는 사역은 사람들을 인도하여 그들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음식으로 누리도록 하는 것이다.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이상, 4 장, 84-85 쪽)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은 사람과 연합하시어 사람의 요소와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주제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들에 대해 입맛을 잃었다는 의미이다. 생명나무가 우리에게 모든 메시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다. 사람의 생명이 되시려고 오신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모든 메시지는 ... 가르침의 바람이다(비교 엡 4:14). 다른 이들을 이끌어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고 그리스도를 그들의 생명으로 누리게 한다면, 그러한 메시지는 생명의 메시지라고 불릴 수 있고 사람들에게 생명 공급을 준다.

신언자로서 참되게 사역하는 사람, 곧 생명나무를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며 하나님께 자신을 가득 채우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다른 이들을 이끌어 하나님을 그들의 생명으로 누리도록 할 것인데, 그것은 그들이 제시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메시지가기 때문이다.

신언자로서 참되게 사역하기를 갈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식나무에서 구출되어 생명나무 안에서 살아야 한다.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이상, 4 장, 85-86 쪽)

사람의 그 어떤 인간적이고 타고난 냄새도 신부에게서 발하는 향기에 비할 수 없다(아 4:11). 이로 인해 그녀의 입술은 자연스럽게 신선한 꿀을 흘린다. 꿀은 달콤하며, 상처받은 이들을 회복해 준다. 그러나 이러한 달콤함은 하룻밤 만에 산출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모으고 내적 활동을 갖고 주의 깊게 저장한 데서 온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배운 사람만이 지니는 특별한 소유이다. 따라서 이 여자의 입에서 흘러나온 것은 한담이나 우스갯소리나 경솔한 말이 아니라, 달콤하고 사람을 상쾌하게

하여 힘을 북돋아 주는 말이다. 그녀의 말은 폭발적으로 쏟아지는 급류가 아니라, 벌집에서 한 방울씩 떨어지는 꿀과 같다. 꿀은 가장 느리게 떨어진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고 싶은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들이 하는 말은 재잘거리는 개울물과 같다. 비록 그들이 영적인 것에 대해 말할지라도, 그들의 말하는 방식에서 그들이 아직 더 깊은 은혜의 일을 통과하지 않았음이 드러난다. 또한 이 말씀에서 우리는 달콤한 꿀을 천천히 흘리는 그녀의 입술뿐 아니라, 그녀 속에 저장된 것들도 볼 수 있다. “그대의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으며”. 혀 위쪽은 사람이 음식을 섭취하는 곳이지만, 혀 밑은 사람이 음식을 저장하는 곳이다. 따라서 이 말씀은 그녀가 꿀과 젖을 저장해 왔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그녀 안에 풍성이 있다. 그녀에게 충분하고도 남을 음식이 있다. 꿀은 약하고 상처받은 이들을 회복해 주지만, 젖은 미성숙한 이들을 먹인다. 그녀가 자신 안에 매우 많은 풍성을 저장했기 때문에, 음식이 마치 그녀의 혀 밑에 있는 것 같고, 그녀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느 때든지 이 음식을 분배할 수 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전부를 드러내지는 않는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 곧 그들 안에 소유한 모든 것을 밖으로 전시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다. 꿀과 젖은 그녀의 혀 밑에 있다. 즉 꿀과 젖은 그녀의 입술 위에 드러나 있지 않다. (워치만 니 전집, 개정판, 23 권, 노래 중의 노래, 3 장, 104-105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워치만 니 전집, 개정판, 56 권, 복간 부흥보, 37기, 두 종류의 생활 원칙;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이상, 2, 4-5 장

2/23 금요일**아침의 누림****사 13:1**

1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빌론에 대해 본 부담이다.

속 12:1

1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와의 부담의 말씀이다. 여호와, 곧 하늘들을 펼치시고 땅의 기초를 놓으시며 사람 안에 영을 지으시는 분께서 이렇게 선포하신다.

고전 2:4-5, 9-11

4 내가 나의 말과 선포를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그 영과 능력을 나타내면서 한 것은

5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9 오직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본 적이 없는 것들이고, 귀로도 들은 적이 없는 것들이며, 사람의 마음에 떠오른 적도 없는 것들이다.”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10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을 통해 그것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은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이들까지도 꿰뚫어 보시기 때문입니다.

11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엡 5:26-27

26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이 하여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27 또한 점이나 주름이나 그 같은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 50:4

4 주 여호와께서 나에게 가르침받은 이의 혀를 주시어 지친 사람을 말로 붙들어 주는 법을 알게 하셨다. 그분은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시되 나의 귀를 깨우쳐 주시어 가르침받은 이같이 듣게 하신다.

계시와 빛이 먼저 온다. 이것이 출발점이다. ... 그러나 계시와 빛만으로 말씀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생각과 이해가 반드시 새로워져야 한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다시 빛을 비추실 때, 그는 비로소 계시의 내용에 대해 분명해질 것이다. 우리는 모호하고 흐릿한 계시를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없다. 최소한 그 계시가 생각 안에서 분명해져야만 비로소 그것에 관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다. ...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분명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말씀의 사역자가 아닐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에게 아직 그것을 표현할 적절한 말이 없기 때문이다. 다른 이들이 들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말뿐이다. 그들은 우리의 생각을 들을 수 없다. 적합한 말이 없다면 우리가 강단에 서서 몇 시간을 말한다 해도 우리가 깨달은 것을 전달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부담이란 무엇인가? 먼저 부담은 우리가 영 안에서 받은 빛이고, 그 다음은 그 빛을 포착한 생각이며, 마지막으로 그 빛과 생각을 보완해 줄 내적인 말씀이다. 부담의 마지막 단계는 내적인 말씀을 해방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것들이 결합하여 신언자의 부담을 이룬다. 즉 부담은 빛에 생각이 더해지고, 그 위에 내적인 말씀이 더해진 것이다. 우리의 부담은 하나님의 계시를 사람에게 해방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통해 해방된다.(워치만 니 전집, 개정판, 53 권,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 12 장, 250, 253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말씀의 사역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주님에게서 온 부담이 없거나, 혹은 부담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부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장로들은 어떤 부담도 없이 교회의 행정을 수행할지도 모른다. 말씀을 사역하는 이들 또한 부담이 없는 채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다. ... 말씀을 공급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달변인가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조리 있는가의 문제도 아니며, 성도들이 감동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의 문제도 아니다. 그보다 성도들 안에 산출될 것이 무엇인가의 문제이다. 만일 듣는 이들 중 몇몇이 아직 구원받지 않았다면, 우리가 말씀을 해방할 때 그들 안으로 구원의 씨를 뿌리고자 주님의 은혜로 그들의 혼을 짊어질 부담을 받아야 한다. 우리의 부담은 역동적인 말씀을 해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시키는 것이다. 만일 듣는 이들이 이미 구원받았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부담은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만일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지만 기꺼이 자신을 주님께 내어 드리고 그분의 다루심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부담은 그들이 기꺼이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다루심을 받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부담을 가지고 말씀을 공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할 때,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말하는 주제에 있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지의 여부에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으려면, 말씀을 공급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부담이 있어야 한다. 사람들은 부담이 실려 있는

한 편의 메시지를 들을 때 부정적으로 반응하거나 격동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할 때 쉽고 값싼 방식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 단지 우리에게 준비된 메시지가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말씀을 공급하는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상태를 짚어지고, 그들의 상태를 감지하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지 알아야 한다.

부담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활동은 죽어 있고 효과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부담이 있어야 살아 있고 번성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가 취한 방법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사람과 관련되어 있다. ... 부담이 있으면 자아가 감소되고 처리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부담이 우리에게 허용하지 않는 일들이 있고, 우리가 먼저 처리를 받아야만 우리의 부담을 해방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기 때문이다.

교회 안의 형제들은 어떤 회사에 고용된 직원처럼 단지 의무감에 의해 봉사하는 것처럼 보인다. ... 그러한 봉사는 위험한 것이며,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임재를 잃게 할 것이다. ... 주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부담을 받아야 하고 부담을 가져야 한다.(교회의 행정과 말씀의 사역, 2 장, 29-30, 33-34, 39-41 쪽)

추가로 읽을 말씀: 교회의 행정과 말씀의 사역, 2 장; 워치만 니 전집, 개정판, 53 권,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 12 장

2/24 토요일

아침의 누림**딤후 4:2**

2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준비하고 있으십시오. 매사에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써, 가책받게 하고 책망하고 권유하십시오.

딤후 1:6-7

6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대에게 일깨워 줍니다. 나의 안수를 통하여 그대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은사를 부채질하여 불타오르게 하십시오.
7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겁내는 영이 아니라 능력의 영과 사랑의 영과 맑은 생각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딤후 4:6-8, 15-16

6 그대가 이러한 것들을 형제들 앞에 제시한다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긴밀히 따른 좋은 가르침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사역자가 될 것입니다.
7 속되고 허무맹랑하게 꾸며 낸 이야기를 거절하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훈련하십시오.
8 신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여 현재의 삶과 장래의 삶에 대해 약속해 줍니다.
15 그러한 일들을 실행하고 그러한 일들에 투신하여, 그대의 진보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도록 하십시오.
16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고, 그러한 일들을 계속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을 행할 때, 그대 자신을 구원하고 또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매일 온갖 종류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말하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행 5:42, 8:4, 딤후 4:2). 우리는 각 지파와 언어와 백성과 민족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말해야 한다(계 5:9). 마가복음 16 장 15 절에서 주 예수님은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들에게 말할 정도까지 복음 전파의 부담을 가져야 함을 보여 준다. 우리는 산들과 나무들과 강들과 동물들과 창조물 전체에게 말해야 한다. 이것을 실행한다면, 우리는 자신의 말하기를 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실행은 우리가 능력을 갖고 말하도록 우리를 강화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서투르게 말한다면, 우리의 말은 약화되고 심지어 우리가 말하는 내용도 약화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항상 말하는 것을 연습해야 한다.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지라도 연습해야 한다. 언제나 우리에게는 말할 대상인 모든 창조물이 있다. 내가 청년 때 이것을 실행했음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린다.

말하는 사람이 되려면 내적인 충만이 필요하다. 그럴 때 우리는 내용을 갖게 된다. 또한 우리에게 외적인 충일도 필요하다. 그럴 때 우리는 능력과 권위를 갖는다. ... 집회에서 말할 때 우리의 말은 영을 훈련하는 것으로 가득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그리스도를 말함, 4 장, 50-51, 56-57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유감스럽게도 타락으로 인하여 사람은 사람의 영을 간과하고 소홀히 했을 뿐 아니라 사람에게 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조차 거부했다. ... 오늘날의 사회가 그토록 많은 법률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의 영의 한 부분인 양심을 소홀히 하기 때문이다. ... 인간 사회에서 가장 선한 사람들은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양심을 주의하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의 영은 거듭났다. 거듭나는 것은 보강되는 것이다. 보다 강하고 보다 풍성한 어떤 것이 우리 존재 안으로 더해졌다. ...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 안으로 더해졌다. 이 더해짐은 참된 선물이다. ... 우리에게 거듭나고 보강된 영, 곧 매우 강한 영이 있으며 더불어 동반자도 있다. 이 동반자는 삼일 하나님이다. ... 우리는 얼마나 풍성한 영을 갖고 있는지!

우리의 영의 중요성을 보았으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것을 들여다보기 원한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습관을 세워야 한다. 아침에 일어날 때, 내가 자연스럽게 맨 처음으로 말하는 것은 “오, 주님.”이다. “오, 주님.” 이라고 말하며 주님을 부르는 것은 영을 훈련하는 습관 중 하나이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큰 차이를 만든다. ... “오, 주님.” 이라고 할 때, 우리는 주님을 만진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습관이다.

디모데후서 1 장 6 절과 7 절은 우리가 우리의 영을 부채질하여 불타오르게 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 준다. ... 어떤 사람들은 이 절들이 우리의 영이 아닌 우리의 은사를 부채질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이 절들 안으로 들어간다면, 우리의 은사를 부채질하여 불타오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영을 부채질하여 불타오르게 하는 것임을 보게 될 것이다. 디모데후서 1 장 6 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사를 부채질하여 불타오르게 하십시오.”라고 말한다. 그런 다음에 7 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영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부채질하여 불타오르게 해야

하는 그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영을 부채질해야 한다.

구원받은 이들인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생활을 할 자본을 갖고 있는데, 이 자본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은 그분의 정하심에 따른 것으로, 우리 의지에 속한 능력과 우리 감정에 속한 사랑과 우리 생각에 속한 맑은 정신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 세 조력자가 우리의 영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우리를 침체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양하고 도와주기 위해서이다. (우리의 영과 함께하는 그 영, 8 장, 97-98, 101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우리의 영과 함께하는 그 영, 8 장;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그리스도를 말함, 3-4 장

추가로 읽을 말씀

디모데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8

2/25 주일

아침의 누림

호 6:1-3

1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치료하실 것이요 그분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임이라.

2 그분께서 이틀 뒤에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제삼 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안에서 살게 되리라.

3 그러니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 알기를 추구하자. 그분의 나아오심은 새벽이 오는 것처럼 분명하니 그분은 우리에게 비처럼, 땅을 적시는 늦은 비처럼 오시리라.

시 119:147-148

147 저는 새벽을 고대하며 부르짖고 주님의 말씀들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148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고자 제 눈은 야간 파수 때를 고대하였습니다.

아 8:13-14

13 “동산들에 거하시는 이여, 나의 벗들이 당신 목소리에 귀 기울이니 나도 그 목소리를 듣게 해주세요.

14 내 사랑하는 이여, 속히 오셔서 향기 그윽한 산들 위에 있는 가젤이나 젊은 수사슴처럼 되어 주세요.”

유 20-21

20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21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십시오.

찬송: 922 (英) 그리스도 공급하라 (中:665)

1 그리스도 공급하라 말만 아닌 생-활로 그리스도 공급-하라 죄에 매인 이-에게

(후렴)

그리스도 공급하라 멸망하는 세-상에 주를 살고 또 누-려서 주가 표현되-게 해.

2 우리들이 얻은 주님 귀한 주님 공-급해 친구들과 친척-에게 그리스도 분-배해

3 우리들이 누린 주님 친구에게 공-급해 참 자랑과 축복-이신 그리스도 나-뉘줘

4 우리 생명 만물 되신 그리스도 공-급해 주의 초월 맛보-도록 그리스도 분-배해

교회전체 로마서 진리추구

Level 1—Hebrews Sequential Reading

Scripture Reading and Copying: Heb. 1:1-3

Assigned Reading: *Life-study of Hebrews*, msg. 1

Level 2—Hebrews Topical Study

Crucial Point: The Speaking God

Scripture: Heb. 1:1

Assigned Reading: *Life-study of Hebrews*, msg. 1-2
Supplemental Reading: *The Apostles' Teaching*, ch. 1

1

Questions:

1. What is the significance of the book of Hebrews starting with God's speaking in the Son?

2. Why is God's speaking important?

3. In Heb. 1:2, which days are the "last of these days?"

4. What does it mean that God speaks to us "in the Son"?